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 경 원

대진대학교 · 교수

- I. 머리말
- II. 대순사상의 개념
- III. 대순사상의 전개

- IV. 대순사상의 연구현황과 전망
- V. 맺음말

I. 머리말

올해로 대순 139년을 맞이하는 대순종단은 1969년 박우당 도전의 종단창설 이래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종교발전을 이룩하였다. 전국 200여만 호에 달하는 도인 가정 수와 5대 도장, 회관, 회실 및 포덕소 그리고 3대 사업(구호자선, 사회복지, 교육)으로 이룩한 학교 및 병원, 복지재단 등은 오늘날의 종단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대순종단의 발전은 한국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자생 민족종교로서의 특질을 여실히 보여 왔으며,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순종단의 발전에 있어서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을 지적한다면 무엇보다도 종단을 창설하여 이끄신 박우당 도전의 탁월한 영도력과 수도인들의 합심이 있었다. 여기에 부가한다면 종단 교리에서

드러난 대순진리의 흡인력과 시대적인 가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탁월한 호소력을 지닌다는데 주안점을 둘 수 있다. 1996년 애석하게도 도전께서 화천하신 이후 우리 종단은 그 동안의 발전된 저력으로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제 대순종단은 스스로 세계인류를 향한 보편적 진리를 증명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종교의 부침이 있었으나 유구한 역사로서 그 생명력을 이어온 종교는 그리 많지 않다. 이른바 세계 종교는 지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심성에 호소하고 인간의 구원을 향한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였다는데서 그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종교가 그 시대적 한계에 머물지 않고 오랜 역사를 거쳐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주된 힘은 바로 이성적 접근을 통한 학문연구에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이 때의 학문이란 교학 또는 신학을 말하며 이러한 학문은 하나의 신앙을 진리체계로 승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소위 ‘이해를 필요로 하는 신앙’ ‘진리의 대중화’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대순종단은 그 발전의 저력을 기반으로 종단 교리가 지닌 진리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심화시킴으로써 내일의 종단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종단사업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만 한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인류가 요구하는 새 시대의 보편적 가치관으로서 대순진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고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지금까지의 대순사상 연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전망을 기획함으로써 종학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즉 오늘날의 대순 종학은 종단의 발전과 더불어 대두되었으며, 초기에 종단 내 연구로부터 대학 내 연구, 학회 간 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다. 이에 따른 학문적 평가 및 향후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미력하나마 본 고에서 그 동안의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것에 의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¹⁾

II. 대순사상의 개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기에 앞서 먼저 ‘대순사상’이 지닌 개념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순사상은 일단 대순진리회 종단의 교리사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순(大巡)’이라고 하는 핵심 용어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순(大巡)’은 종단의 명칭에도 포함되어 있고, 종단의 경전인 『전경(典經)』에서 중심사상을 이루고 있다. 대순종단의 기본 신앙이 무엇보다도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 이심”을 바르게 자각하는데 있다고 할 때,²⁾ 강증산 사상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바로 ‘대순(大巡)’이 거론되는 것이다. 마치 공자의 사상을 ‘유(儒)’라고 하고, 석가모니의 사상을 ‘불(佛)’이라 하며, 노자의 사상을 ‘도(道)’라고 하고, 예수의 사상을 ‘그리스도(Christ)’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대순’은 오늘날 종단의 명칭으로 삼을 만큼 신앙대상의 핵심진리를 총괄하는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래 ‘대순’은 한문 고전(古典)에 등장하는 용어로서 『서경(書經)』에 “왕이 곧 육군(六軍)을 대순하셨다”³⁾에서 유래한다. 즉 ‘대순’이라는 단어에는 그 주체가 되는 임금과 이어서 그 임금의 주된 활동을 상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경(典經)』에 언급된 ‘대순’은 그 주체가 되는 구천상제와 상제의 우주적인 대역사(大役事)를 가리키고 있다. 상제께서는 무상한 지혜와 무변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을 지니고 역사적

1) 본 고에서 다룬 연구성과는 2008년 12월 말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음을 밝힌다.

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984, p.17.

3) 『書經』 泰誓下 「時厥明 王乃大巡六師…」

대종교가인 강증산으로 강세하여 세계 창생을 널리 건지기 위한 9년간의 천지공사를 단행하였다. 그 대공사(大公事)에서 천명된 해원(解冤) 보은(報恩) 양원리인 도리로 만고에 쌓였던 모든 원울(冤鬱)이 풀리고 세계가 상극이 없는 도화낙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상제의 대순하신 결과요 진리라고 본다.⁴⁾ 따라서 ‘대순’은 이와 같이 상제의 존재와 그 구체적인 활동을 아우르는 총괄개념이다.

‘대순’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를 하나의 문헌제목으로 사용한 최초의 자료는 1929년 이상호 저작의 『대순전경(大巡典經)』이다.⁵⁾ 이어서 형제인 이정립은 개인의 저서로서 『대순철학(大巡哲學)』을 간행하였다.⁶⁾ 이 두 책은 모두 초기 신앙단체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유통되었는데, 『대순전경』에서는 ‘삼원대순(三元大巡)’ ‘대순의세(大巡醫世)’ ‘대순(大巡)의 신(神)’ ‘대순이상(大巡理想)’ 등의 표현이 나오고, 『대순철학』에서는 단지 책 제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본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대순’이라는 용어는 발휘되었지만 다만 수식어에 머물렀고 어떤 구체적인 교학의 명칭이나 종단의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화되지는 못했다고 본다.

1969년에 창설된 대순진리회는 바로 이 ‘대순’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인 종단 명칭으로 사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교학(종학)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미 ‘대순’이라는 어귀는 『전경』에 상제의 법설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천하를 대순하다가’(교운 1장 9절, 권지 1장 11절) ‘천지의 대순이라’(교운 1장 64절) 등의 표현이 있다. 이 가운데 삼계 대순 개벽공사의 뜻을 담고 있는 ‘대순’이야말로 강세하신 강증산의 사상적 위상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4)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1969, p.8 참조.

5) 초판 간행 년도가 1929년이며 발행처는 동화교(東華敎)이다. 그 전신이 된 책은 『증산천사공사기』(1926)이다. 증산교단 최초의 종교적 경전으로 평가되는 『대순전경』은 순 한글 증보판인 2판(1933), 국한문 혼용 증정판인 3판(1947), 대폭 증보된 6판(1965)으로 거듭나면서 오늘날 초기 신앙단체의 원서로 전해오고 있다.(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김탁, 『증산교의 교리체계화 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고남식, 『해원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6) 이정립 저 『대순철학』, 1947, 발행처는 증산교본부 교화부이며, 여강출판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단의 명칭에서 부각된 ‘대순’은 종단간행물인 『대순진리회요람』(1969), 『대순회보』(1983 창간), 『대순성적도해요람』, 『대순지침』(1984) 등이 발행됨에 따라 종단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어서 교학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순사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학술저서로서 최초가 되는 『대순종교사상』(1976)에 이어 ‘대순사상’을 하나의 책제목으로 사용한 효시는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1983)이다.⁷⁾ 대순진리회의 교리사상을 단지 종교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과 세계의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용어가 바로 ‘대순사상’이다. 이로써 오늘날 대순사상은 본래의 종교적 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모든 학문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이해되어지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데서 그 용어의 범위는 무한한 것으로 본다.

요약하면 대순사상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신앙을 근간으로 한 교리사상의 총체를 말하며, 이 때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종단의 공식경전인 『전경(典經)』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연구 성과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바로 『전경』을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한 대순종단의 사상을 다룬 것에 국한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여타의 ‘증산사상연구’와도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Ⅲ. 대순사상의 전개

대순사상의 기원은 종단의 신앙대상이신 강증산(姜甌山, 1871~1909) 구천상제의 강세와 그 법설로부터 시작된다.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상제께서는 “이조말엽에 극도로 악화된 종교적·정치적·사회적 도탄기를 당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

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저, 대순진리회출판부 발행의 논문집이다. 총 6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에 의한 종교적 법리로 인간을 개조하면 정치적 보국안민과 사회적 지상천국이 자연히 실현되어 창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대 미증유의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시며 이에 수반된 삼계공사를 행하시다.”고 하였다.⁸⁾ 여기서 대순진리는 구천상제에 의해 선포된 위대한 종교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요약된 표제가 바로 열여섯 자의 종지(宗旨)이다. 일찍이 상제께서는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⁹⁾고 하여 오늘날 종지의 단서를 남긴 바 있다. 즉 음양합덕으로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고, 신인조화로 신명을 조화하며, 해원상생으로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道)로 도통진경인 후천선경을 세우는 것이 곧 상제의 사명이요 진리인 것이다. 대순사상은 이렇게 구천상제께서 선포한 진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순종단의 역사에 있어서 공식적인 종지(宗旨)의 표방은 대순사상의 이념적 기초를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종지란 하나의 종교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상이 이로부터 연역되어 나오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지란 곧 구천상제의 대순진리를 압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최초의 종단을 창설한 조정산(趙鼎山, 1895~1958) 도주(道主)에 의해 표방된 것이다. 조정산 도주께서는 1925년 을축년 종단 무극도를 창설하면서 공식적으로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을 정하였으며 이로써 모든 교리 체계의 근간을 확립하였다.¹⁰⁾ 구천상제로부터의 종통을 계승하여 상제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통찰하였으므로 종지를 정할 수 있었고 또한 그 실천의 방법으로써 신조를 확정하고 나아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조정산 도주는 그의 시대에 구천상제로

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p.10.

9) 『典經』 공사 1장 3절.

10) 『典經』 교운 2장 32절 참조.

부터 비롯된 대순진리를 교리적으로 조직화하고 하나의 종교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대순사상의 중창적(重創的) 인물로 평가될 수 있다.

1969년에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창설된 종단 대순진리회는 조정산 도주의 유명(遺命)에 의해 종통을 계승한 박우당(朴牛堂, 1917~1996) 도전(都典)의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도전께서는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고 참신한 종교활동으로 종단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오늘날 현대 종단의 대외적 위상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영도력을 발휘하였다. 종단의 새로운 도약과 외적인 규모의 괄목할 성장으로 사회적 인지도는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교육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6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종합대학이 건립되었다. 1992년에 개교한 대진대학교에서는 1995년에 대순종학회가 신설됨으로써 바야흐로 ‘대순종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순종학은 곧 대순진리회 교리에 대한 학문 체계를 말한다. 종단 내에서 타 종교의 신학이나 교학과 구별해서 그 고유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 교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의 인류보편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성적 토대를 갖추고자 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은 대순종학의 연찬(研鑽)으로 체계적인 심화의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박우당 도전의 시대에 이르러 대순사상은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인류의 정신사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대순사상의 전개는 강증산 구천상제로부터 선포된 대순진리에서 비롯되며 조정산 도주에 이르러 교리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박우당 도전의 시대에 ‘대순종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대순사상의 활발한 연구와 학술활동에 대한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전망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IV. 대순사상의 연구현황과 전망

1. 분야별 연구현황

1) 학위논문

1995년에 대진대학교 내 대순종학과가 신설된 이래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통해 다수의 학위논문이 양산되었다. 2009년 현재까지 석사 학위논문만 총 17편이 배출되었으며, 아직 박사학위논문은 없다. 대진대학교 외에 대순진리회 『전경』을 근거로 한 학위논문은 대학신설을 전후해서 다양한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이 배출된 바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논문】

- 윤재근, 「증산사상의 교육원리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1.
- 김정태, 「증산 강일순의 체육사상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1993.
- 이재호, 「증산 강일순의 해원상생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1998.
- 이주희, 「유교의 천관과 대순의 천관 비교연구」, 성신여대, 1999.
- 김석한,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1999.
- 김영주, 「대순사상의 해원이념 연구」, 대진대학교, 2000.
- 조용기, 「대순사상의 사회인식과 사회개혁사상」, 대진대학교, 2001.
- 장문정, 「대순사상의 천인관계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1.
- 박경혜, 「대순사상의 생명관 연구」, 대진대학교, 2001.
- 김태수,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 대진대학교, 2002.
- 이승민,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2.
- 이승목, 「대순사상에 나타난 종교심성 연구」, 대진대학교, 2002.
- 최현희, 「대순사상의 여성관 연구」, 대진대학교, 2002.

- 송미령, 「다종교사회안에서의 종지론의 보편성 연구」, 대진대학교, 2002.
김승남,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 대진대학교, 2003.
정지윤, 「재소자 교정제도 문제점에 대한 종교적 대안 연구」, 대진대학교, 2003.
염미양, 「대순사상의 서학관 연구」, 대진대학교, 2005.
진정애, 「대순사상의 심론 연구」, 대진대학교, 2005.
김혜원, 「대순사상의 근대성과 변혁논리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6.
송태일, 「대순사상의 종교적 상징 연구」, 대진대학교, 2006.
나권수, 「대순사상에 나타난 지상신선사상 연구」, 대진대학교, 2008.
이진재, 「대순사상의 조화이념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2008.

【박사학위논문】

- 윤기봉,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1994.
이경원, 「한국근대 천(天)사상연구」, 성균관대학교, 1998.
윤재근,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동국대학교, 2001.
고남식, 「해원주제 강증산 전승 연구」, 건국대학교, 2002.

이상의 학위논문들은 모두 제도권 교육 내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 제출된 연구논문으로서 하나의 학문적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대순사상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체로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학위논문들은 초기에 증산사상 연구와 혼용된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 대순종학의 대두와 함께 기존의 증산사상 연구와 구별된 독자적인 궤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별로는 초기에 교육학, 체육학, 철학, 종교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대순종학과의 신설된 이후에는 대순종학 자체의 전공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학회 학술지 게재논문

1990년대 이후 학위논문의 양산과 더불어 한국의 다양한 학회에서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게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종교관련 학회의 새로운 형성과 발전에 맞물려 이루어졌으며, 한국종교학의 성과로 기록되게 되었다. 관련학회로서는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사학회, 한국신종교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도교학회, 동학학회, 대동철학회 등이 있으며, 특별히 문학분야에서 겨레어문학회, 문학치료학회에서의 연구논문이 이색적이다. 이 외에도 대학부설연구기관을 둔 곳으로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게재된 논문들을 저자별로 대략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 고남식, 「개화기 강증산 전승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식」 『겨레어문학』 제26집, 겨레어문학회, 2001.
- _____, 「한국인의 정체성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6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_____, 「증산의 강세전승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 _____, 「단주 해원전승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6.
- _____, 「해원설화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 _____,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대순진리회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제16집, 한국신종교학회, 2007.
- _____, 「강증산 관련 경전의 변이에 대한 고찰-천지공사 이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50집, 한국종교학회, 2008.
- 구득환, 「한국의 대순진리회와 사회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 제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김순자, 「대순진리회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능」 『종교교육학연구』 제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_____, 「한국전통가정교육과 대순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10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0.

- _____, 「대순진리회와 대학의 교양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제5집, 한국신종교학회, 2001.
- 김영주, 「천지공사와 해원이념에 관한 일고」 『도교학연구』제18집, 한국도교학회, 2002.
- _____, 「한국근대 신종교의 이상사회론」 『도교학연구』제19집, 한국도교학회, 2005.
- 박희봉, 「대순진리회 정치사상-서양정치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박선영, 「한국종교들의 인간관과 인격교육의 가치요소-천도교와 대순진리회 및 원불교등 근대를 전후한 자생종교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유승중, 「대순진리회와 청소년의 심성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윤기봉, 「후천개벽의 종교학적 연구」 『대진논총』 대진대학교, 1995.
- _____, 「대순사상의 종교학적 이해-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7집, 한국종교교육학회, 1998.
- _____, 「한국신종교의 이상적 인간관」 『종교교육학연구』제22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_____, 「대순사상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 『철학,사상,문화』제5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7.
- 윤재근, 「대순진리회와 인존(人尊) 사상」 『종교교육학연구』제2집, 한국종교교육학회, 1996.
- _____, 「한국 근대 사회변동과 대순사상」 『한국종교』제22집, 원광대학교 한국종교연구소, 1997.
- _____,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8집,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종교연구』제23집, 한국종교학회, 2001.
- _____, 「조선후기 종교사회적 갈등 구조의 해석」 『종교교육학연구』제15집,

-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_____, 「대순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천지공사(天地公事)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17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_____, 「한국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대동철학』제23집, 대동철학회, 2003.
- _____,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人尊)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24집,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이경원, 「한국 근대종교에 나타난 천의 인격성 고찰」 『한국종교사연구』제7집, 한국종교사학회, 1999.
- _____, 「대순사상의 수양론 연구」 『한국종교사연구』제8집, 한국종교사학회, 2000.
- _____,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 후천론의 특질: 대순신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제4집, 한국신종교학회, 2001.
- _____, 「대순사상의 심체론 연구」 『신종교연구』제6집, 한국신종교학회, 2002.
- _____, 「한국 근대 신종교의 사회사상 연구: 대순신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제8집, 한국신종교학회, 2003.
- _____, 「대순사상의 신관 연구」 『종교연구』제34집, 한국종교학회, 2004.
- _____,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인존론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제12집, 한국신종교학회, 2005.
- _____, 「대순진리의 근대성과 변혁사상」 『동학학보』제10호, 동학학회, 2005.
- _____,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제13집, 한국신종교학회, 2005.
- _____, 「강증산 천지공사의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제14집, 한국신종교학회, 2006.
- _____, 「대순사상의 삼교관왕론 연구」 『신종교연구』제17집, 한국신종교학회, 2007.
- _____, 「한국민족종교의 특성과 대순사상」 『신종교연구』제18집, 한국신종교학회, 2008.
- _____, 「대순진리회 기도의례의 종교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제19집, 한국신종교학회, 2008.
- 이재호, 「대순진리회 수행의 이론과 실제」 『신종교연구』제13집, 한국신종

교학회, 2005.

하종필, 「증산 강일순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제16집, 한국 신종교학회, 2007.

이상의 논문들에 나타난 주제는 다양하다. 사상적 특질을 다루는 주제로서 천관, 신관, 인간관, 세계관, 종교관, 사회관, 정치관, 환경문제, 시대관 등이 있으며, 전공에 특화하여 문학치료학, 종교교육학 등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한편 대순사상의 직접적인 교리를 다루는 논문도 적잖이 발표되었는데, ‘수행’ ‘의례’ ‘천지공사’ ‘후천개벽’ ‘종지’ ‘전경연구’ 등이 있다. 말하자면 대순사상은 일반학회를 통해 교리 내적인 연구와 교리 외적인 연구를 동시에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종단의 교리 논문집 게재논문

일반 학회를 통한 연구활동은 연구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에 대순진리회 종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주도한 연구활동의 경우는 대순사상연구의 훨씬 집중적인 성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특장점을 지닌다. 이는 대순종단의 조직기구에 있어서 교무부 산하에 연구위원회와 대순종교문화연구소를 두고 연구활동을 장려한 것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대진대학교가 설립된 이후에는 대학교 내에 대순사상학술원과 대진학술원을 설치하고 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집중적인 연구논문집을 발간한 것에서 자체적인 성과를 지녔다고 본다. 이로써 대내·외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 수권의 단행본과 함께 연구논문집이 발간되었으니 여기에 게재된 논문만도 수 백편에 다다르고 있다. 지면상 개별논문의 소개는 생략하고 논문집의 종류와 대순사상 관련 논문 편수만을 대략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대순종교문화연구소 간행, 1983, 총 6편
- 『대순논집』, 대순진리회 간행, 1992, 총 17편
- 『대순사상논총』 제1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6, 총 14편
- 『대순사상논총』 제2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7, 총 14편
- 『대순사상논총』 제3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7, 총 16편
- 『대순사상논총』 제4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8, 총 17편
- 『대순사상논총』 제5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8, 총 17편
- 『대순사상논총』 제6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8, 총 17편
- 『대순사상논총』 제7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9, 총 15편
- 『대순사상논총』 제8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1999, 총 13편
- 『대순사상논총』 제9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0, 총 14편
- 『대순사상논총』 제10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0, 총 20편
- 『대순사상논총』 제11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1, 총 13편
- 『대순사상논총』 제12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1, 총 14편
- 『대순사상논총』 제13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1, 총 16편
- 『대순사상논총』 제14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2, 총 18편
- 『대순사상논총』 제15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2, 총 17편
- 『대순사상논총』 제16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3, 총 5편
- 『대순사상논총』 제17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4, 총 2편
- 『대순사상논총』 제18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4, 총 1편
- 『대순사상논총』 제19집, 대진대학교부설 대순사상학술원 간행, 2005, 총 2편
- 『대순진리학술논총』 제1집, 대진학술원 간행, 2007, 총 9편
- 『대순진리학술논총』 제2집, 대진학술원 간행, 2008, 총 9편
- 『대순진리학술논총』 제3집, 대진학술원 간행, 2008, 총 10편

이상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1983년에 종단 연구소가 주도한 것을 기점으로 2008년 말까지 종단 주도의 연구논문은 총 296편으로 집계 된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대진대학교 내에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장려한 것이 논문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종단의 교리체계에 근간을 두고 교리 해

석에 치중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고 본다. 1996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간행되었던 논문집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에 대한 항목을 순서대로 다루고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도 이와 같은 교리연구논문집은 계속 간행 중에 있으며 여전히 재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대순종단이 주도하는 교리연구 활동과 연구논문집의 발간은 종단의 발전과 더불어 언제나 진행형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4) 단행본

연구논문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체계화하여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이론을 정립하게 되면 단행본 연구서가 발간될 수 있다. 대순사상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단행본의 발간도 있게 되었는데, 초기에 종교학자의 관심과 종단의 지원으로 간행된 연구서는 오늘날 ‘대순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지금까지 간행된 단행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행본 목록】

-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76.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증산의 생애와 사상』, 대순진리회출판부, 1979.
- 장병길, 『대순진리입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 장병길, 『대순진리강화 I』,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 장병길, 『대순진리강화 II』,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장병길, 『천지공사론』,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9.
- 대순종학교재연구회, 『대순사상의 이해』, 대진대학교출판부, 1998.
- 최동희·이경원 공저,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 안중운, 『상생윤리학』, 대순사상학술원, 2000.
- 정대진, 『대순사상논총』, 일심출판사, 2004.
- 이항녕, 『현대문명과 대순사상』, 일심출판사, 2004.

대순종단의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위와 같은 단행본들은 그만큼 연구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종단이 주도하여 많은 연구논문이 작성되었으나 하나의 일관된 이론체계로 정리하는 후속작업이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교리연구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고 1차적으로 정리된 교리서를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증보(增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2. 평가 및 전망

1) 평가

이상의 대순사상 연구현황에 대하여 일람해 볼 때 대체로 연구 성과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의 학위논문은 개별 신앙인을 중심으로 대순사상을 여타 학문적 방법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증산사상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증산사상 연구의 주된 소의경전이었던 『대순전경』에서 탈피하여 대순진리회 『전경』에 근거를 둬 따라 대순사상의 개념화에 단초를 놓았다는 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대진대학교 설립과 함께 1999년 대순종학과 대학원이 개설된 시점을 전후하여 학위논문의 성과는 그 이전과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다. 대순종학과에서 양산된 학위논문들은 ‘대순사상’을 하나의 학문적 목표로 삼은 주요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종교사상적인 면, 교리적인 면, 학문방법론적인 면, 사회 응용적인 면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하였고, 그에 따른 대순사상의 가치를 밝히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여기서는 ‘대순사상’이 그 자체로 뚜렷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교리 내적인 이해와 더불어 교리 외적인 측면에서 사상적 이해를 심화시키고

자 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학위 취득률을 높이고 박사학위자 배출과 함께 전문연구자를 많이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직 학문적 초창기에 있으므로 연구성과의 축적을 통해 대순종학의 학문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학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통해서도 대순사상의 가치는 다양하게 접근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문분야로는 철학, 종교학, 문학, 교육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대순사상을 발표함으로써 대순종단의 교리사상이 지닌 보편적 가치를 환기시켰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연구자와 한정된 학회 내에서의 활동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성과도 저조하고 또한 연구의 주제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주로 담당한 인력은 대전대학교 교수들이었으며, 교수 개인의 전공 영역에서만 연구 논문이 양산되었다면 대순사상의 폭넓은 학문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대순사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류 및 연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순사상과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종단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며, 아울러 대순사상에 특화된 한국의 학회창설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종단에서 후원하고 주도한 대전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집중적인 활동은 연구논문의 양적인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종단 지도자들의 교리연구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인지도의 증대에 따른 학술사업에의 전폭적인 투자에 기인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대순사상학술원의 연구사업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교리개요 연구에 특화하여 진행된 이 사업은 매년 2~3권의 논문집을 지속적으로 발간 배포함으로써 대순사상의 학문적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다만 양적인 증대에 집착하다보니 질적인 검증과 학문적인 방법론 개발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새로운 방향의 연구 기획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사업은 학술연구에 대한 종단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발전 가능한 것이며 관련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단행본에 있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서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970~1980년대에는 종단발전의 초창기에 해당하므로 연구자의 부재와 연구논문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이다. 따라서 이 때 발간된 단행본은 종단 외부의 연구자로서 종교학을 전공한 교수 개인의 관심에 따라 수 권의 단행본이 시도되었다. 장병길 교수의 저서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대순종단의 현재를 평가하고 주어진 교리의 단편들을 종교학적 견지에서 이해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초창기에 발간된 『대순종교사상』(1976)은 하나의 종교로서 대순진리회가 지니는 사상적 편린들을 기성의 종교학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한 단행본이다. 즉 종교사상으로서 다루어지는 세계관, 상제관, 신명관, 인간관, 광구관 등이 있으며, 대순종단의 종교적 실천과 조직체계를 소개함으로써 대체로 체계를 갖춘 이론적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초기 이론서인 만큼 교학적 토대를 갖지 못한 외부 학자 개인의 자의적 서술이었으므로 하나의 교학연구서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고 본다. 이후에 발간된 『대순진리입문』 『대순진리강화 I II』 등은 종교학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종단 대순진리회를 종교학 방법을 통한 객관적 이해를 주지시키고자 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교리주제에 특화하여 구성한 단행본으로서 『천지공사론』은 대순사상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해석하고자 한 책이다. 기본적으로 ‘천지공사’를 하나의 종교사상으로 이해하고자 한 필자의 의도는 책 전반에 걸쳐서 그러한 사고체계의 전통을 찾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동원된 주된 가치체계가 바로 동양철학이다. 이 또한 연구자의 입장과 교학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고 본다.

대진대학교의 설립이후에 발간된 단행본은 비교적 대순사상을 교학적 입장에서 다루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진대학교의 교양교

제의 필요성에 의해 공저로 출판된 『대순사상의 이해』는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종교문제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순종단의 교리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 책이다. 기존의 종교학 이론을 객관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서 대순사상의 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교학에 보다 가까운 도서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주어진 교리를 심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서술형식에 그쳤다는 점에서 연구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공저로 발간된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은 일면 연구서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나 두 저자의 일관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안중운 교수의 『상생윤리학』은 종단의 학술연구차원에서 발간된 책이기는 하나 일반 윤리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인 만큼 교학과 일반 학문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정대진 이사장의 『대순사상논총』과 이항녕 교수의 『현대문명과 대순사상』은 모두 대순사상학술원 간행의 논문집 ‘대순사상논총’의 개인 합본집 성격의 단행본이다. 이상과 같은 단행본들은 개인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연구기반의 미약과 축적된 성과의 부족으로 인해 양적인 증대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2) 향후 연구의 방향과 전망

지금까지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평가를 통해 미력하나마 연구사를 개관하였다. 현재 대순진리회 종단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만큼 단시간에 학술연구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연구자의 부족과 연구환경의 열악함 또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교학의 발전과 연구성과의 진작을 위해서는 그 발전의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필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대내적(對內的) 연구요, 다른 하나는 대외

적(對外的) 연구이다. 대내적 연구란 종단의 신앙적 근거가 되는 교리 체계를 직접 해석하고 그 사상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작업이다.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순진리회 요람』의 주된 항목이 될 것이다. 즉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구천상제론, 종단연혁에 따른 종단사 연구, 교리개요로서의 종지와 신조 그리고 목적론, 수도에 해당하는 종단의 의례론, 훈회 수칙의 실천과 관련된 포덕 교화론 등이 있다. 대내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은 학제적인 연구이다. 대순사상에 대한 접근과 연구를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순종학방법론을 개발하는 일이다. 철학, 종교학, 문학, 역사학 등의 인문학과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경제학 등의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학문적 방법론을 동원하는 일은 기성의 종교관련 학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동일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적 방법론을 통해 접근되고 이해된 대순사상은 그 종합의 선상에서 하나의 대순종학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외적 연구란 대순종단이 지닌 사회적 책임과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연구될 수 있는 분야이다. 인류문화는 세기적 전환과 더불어 그 이전 세기에 노정된 수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발견하고 또 이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문제(혹은 여성문제), 환경문제, 세계화의 문제, 세계평화의 문제 등은 이미 21세기의 화두가 되기에 충분한 주제들이다. 세계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제를 떠안고 세계를 향해 진출하고자 하는 종단의 의지는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상적 대안과 더불어 세계인류와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순사상이 인류의 보편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순종단의 문화의식이 성숙되고 나아가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함께 대순사상과의 연계된 연구는 내일의 종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아직 연구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현황연구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종단의 교학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지나간 연구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전망을 조망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또한 많은 연구자의 출현과 학자들의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의 학문이 탄생할 수 있으므로 연구진작과 동기부여에는 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의 학회가 구성되고 대순종학이라는 학문적 위상이 세워짐으로써 그 모든 과거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다.

대순사상의 연구주체는 누구보다도 대순종단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신앙이 전제되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탄생한 신학과도 같이 대순사상은 착실한 학문적 방법을 동원하여 그 본래의 가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신앙고백이 아닌 이성적 이해를 목표로 하여 연구되고 논의된 사실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종교적 실천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은 인간 행동에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대순종단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이론의 제공이다. 여기에 오늘날 대순사상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고 그 새로운 연구의 전기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The Present Status and Vision of the Research on Daesoon Thought

Gyung-won Lee

Daejin University

The doctrinal ideas within Daesoon thought are based on the faith of Daesoonjinrihoe (The Fellowship of the Truth of the Great Itineration), which is grounded upon the Jeongyung, the official scripture of the religious order. Today the religious order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develop and deepen the study of Daesoon doctrine. If this project is carried out successfully, a theory would be presented that would provide not only a firm foundation for their religious work, but also systematic research of Daesoon doctrine necessary for greater understanding by people of other cultures and religions.

The field of Daesoon studies has emerg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Daesoon religious order, as research was initially carried out by the Institute at the Daesoon headquarters. More recent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by Daejin University and The Inter-Academic Society in Korea. What is needed now is to evaluat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which will be instrumental in focusing the vision of the religious order within

the context of Daesoon thought.

Key word : Daesoon thought, Daesoonjinrihoe(The Fellowship of the Truth of the Great Itineration), Jeongyung, Daesoon religious studies

◎ 투 고 일 : 2009년 6월 20일

◎ 심 사 기 간 : 2009년 7월 22일~29일

◎ 계 재 확 정 일 : 2009년 8월 8일